

# 외세의존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70여년간에 걸치는 복잡다단한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은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자주통일의 대업을 얻게라도 실현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겨주고 있다.

우리 민족의 분열은 철저히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을 돌로 갈라놓은 것은 외세이고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바라는 조국통일을 한자도 가로막고있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외세이다. 이런 외세에 빌붙어 그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사대매국의 극치이다.

오늘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가 엄중한 경색국면에 처하고 자주통일운동의 앞길에 또다시 먹구름이 밀려오고있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집권자들이 외세에 대한 무조건적인 굴종과 맹종, 공조에 매달리면서 동족대결책동을 벌이고 있기때문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권리, 리익을 수호할 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다.

하기에 공화국은 조국통일문제

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것을 일관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에 추종하여 국제공조만을 떠들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립장에 실제 대하여 주장하였다. 지난해 공화국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를 통해 남조선당국이 말인 아닌 실정으로 민족자주의 립장을 견지할데 대해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지난 시기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에도 명백히 밝혀져있다.

민족앞에 다진 그 언약들이 지켜졌더라면 북남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 땅우에는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격동의 새시대가 펼쳐졌을 것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자들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폄하하고 미국에 추종하여 국제공조만을 떠들고 밖에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데만 급급하였다. 미국에 손발날 뽀퐁 묶이운채 북남간의 합의들을 어느 하나도 리행하지 않고 오히려 《대화》와 《평화》의 막뒤에서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길로 나아갔다.

남조선당국이 《국제공조》에 매달리며 외세에 추종한것은 민

족의 존엄과 리익을 짓밟는 매국 배족적행위이며 겨레의 날로 높아가는 민족자주지향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다.

하기에 남조선당국의 대미굴종정책, 동족대대시정책은 남조선 각계의 웅대한 비난과 규탄의 대상으로서 돌고돌고 있다.

지난해 11월 남조선의 진보적인 시민사회 및 통일운동단체들이 서울에서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결성식을 가지고 미국의 책동으로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이 가로막혀 속막히던 지난 3년 동안 자주는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를 지키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자주를 버리면 남이 시키는대로 살아야 하는 노예의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를 철저히 느꼈다고 하면서 민족자주실현을 호소한것이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당국은 력사의 뒤걸음 사러지는 마지막순간까지도 《한미동맹》 강화만 떠들고있다. 한편 새로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는 윤석열때말이 외세의존, 외세우성정책에 매달릴 기도들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는것은 력사의 교훈은 안중에 없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이다. 윤석열이 동족과의 화합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한

미동맹》 강화와 《한미일공조》를 떠들며 외세와의 야합을 통한 동족대결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윤석열이 리명박, 박근혜와 같은 선임자들과 한바리다 실어도 짝지 않을 극악한 사대매국노라는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남조선정치시정배들의 체질적인 외세의존사상, 외세굴종정책이야말로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다.

력사와 오늘을 현실은 민족자주만이 우리 겨레가 나아가갈 길이며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할수록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 고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투철한 민족자주의식을 가지고 사대와 굴종, 외세의존정책을 반대하는 거룩적인 투쟁에 적극 떨쳐나 서야 한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수치와 망국의 길이이다.

이 력사의 교훈을 뼈에 새기고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거세찬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 수 없다.

김광익

최근 남조선에서 도서 《김정은시대 북의 선택》이 출판되어 사회 각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있다.

도서는 머리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을 령도 하여오신 지난 10년동안 북에서 매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남조선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 북의 모습에 머물러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시선으로는 김정은시대에 빠르게 변화는 북사 회를 객관적으로 리해할수도, 남북관계를 제대로 전망할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북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10개의 핵심 주제들을 선정하여 김정은시대 10년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돌경축 열병식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으며 2013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그리고 전진과학기술인재화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이끄신데 대해서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강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4차례의 핵시험과 미분토를 사정관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을 통해 2017년에 국가핵무력량을 선언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주적인 외교활동으로 전세계의 주

목을 받으신데 대해서와 자력갱생의 정면돌파전으로 경제분야에서 대혁신을 이룩하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의 모든것을 다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김정은시대의 북에 대한 리해와 미래의 남북관계에 대한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서술하였다.

도서가 나가자마자 남조선언론들은 도서가 북사회를 리해

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력사에 류례없는 격난속에서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절정에 올려세워 주시였으며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마련해주셨다. 또한 뜨거운 열과 정으로 인민중심, 인민사랑의 새 력사를 수놓으시고 불패의 일신 단결과 무진막강한 국력으로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향도하고 계신다.

얼마전에 진행된 신형태극간란 도미씨일 《화성호-17》형식시험사는 사랑하는 인민을 존엄의 최 절정에 떠올리시기 위하여, 조국의 영예와 후대들의 영원한 안녕을 위하여 사생결단의 협로를 헤치시며 승리의 길을 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오신 조 심의 신화, 력사의 대기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우주에 닿았고 이 땅에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빛나는 현실로 꽃피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흠모열기가 더욱 고조되고있고 절세위인 의 령도따라 인민의 리상사회, 천하제일락원으로 변모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긍정하게 평가하여 전하라는 학자, 지식인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막을수 없는 민심의 지향

이제 앞서 지난 1월에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도서 《김정은시대연구》(제1권)가 출판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도 《백두산과 함께 열린 김정은시대 2기》가 서울의 주요도서관들에 한 두루방에 이끄신데 대해서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강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4차례의 핵시험과 미분토를 사정관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을 통해 2017년에 국가핵무력량을 선언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주적인 외교활동으로 전세계의 주

목을 받으신데 대해서와 자력갱생의 정면돌파전으로 경제분야에서 대혁신을 이룩하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의 모든것을 다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김정은시대의 북에 대한 리해와 미래의 남북관계에 대한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서술하였다.

도서가 나가자마자 남조선언론들은 도서가 북사회를 리해

## 통일을 불러

### 해 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로 (4)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는 결성되어 한해밖에 안되는 사이에 도교도와 일본의 거의 모든 도, 부, 현들에 지방본부가 꾸러지고 400여개의 지부와 1500개의 분회가 조직되었다. 청년학생, 녀성, 상공인, 교육자, 과학자, 예술인, 출판보도인, 체육인, 경제인, 종교인 등 모든 분야의 각계각층 동포조직들이 총련산하에 망라되었다.

총련결성후 제일 중요하게 나선 문제는 각지에 널리있는 제일동포들을 총련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것이었다.

한덕수선생은 총련일군들이 설사 힘이 크다고 해도 애국애족의 정신이 있다면 넓은 아량을 가지고 동포들을 사회주의조국과 총련조직의 두리에 묶어세워나가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그는 애국애족의 구호말에 총련조직에 상공인들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군중을 망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한덕수선생이 총련사업을 지도하면서 큰 힘을 넣은것은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이었다. 그는 동포들속에서 우리 말을 배우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밀고나가면서 일본 각지에 조선학교를 세우고 새세대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총련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일본반동들은 도교 한복판에 공화국을 휘날리며 민족교육을 실시하고있는 조선대학교를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며 이를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조선대학교 명예학장이었던 한덕수선생은 조선대학교 교직원들을 비롯한 광범한 제일조선동포들을 불러일으켜 일본당국의 부당한 책동을 규탄하는 투쟁을 벌리는 한편 일본인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결과 일본 정부로부터 끝내 조선대학교에 대한 법적인정을 받아내었다.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것은 아니었다.

일본에는 돈이 없으면 못 있는 배와 같다라는 속담이 있다. 당시의 조선대학교는 교사도 변변치 않았으며 학생들이 저마다 생활난으로 대학을 그만두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바로 이런 메인주체46(1957)년 4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친어머니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이것은 제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생명수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때부터 조선대학교는 도교의 한복판 무사시노별관에 넓은 부지전역을 가진 현대적인 교사로 새로 일떠서게 되었으며 해외동포자녀들은 마음껏 배움의 나라를 펼치게 되었다.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하며 한덕수선생은 이런 가사를 지었다.

...

한덕수선생이 지은 이 가사는 조선대학교창립 40돐 기념행사장에 동포들의 심장의 메아리되어 높이높이 울려 퍼졌다.

한덕수선생은 제일동포들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발맞추어 제일동포들의 귀국의 배걸을 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갔다. 그는 전 총련적인 중앙대회를 여러 차례나 가지면서 일본반동들의 귀국방해책동을 준렬히 규탄하였으며 제일동포들로 하여금 수많은 향의요청단을 맺고 일본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리도록 하는 한편 귀국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대외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더하여 1959년 12월 14일 니이가타항에서 귀국동포들을 태운 첫 배가 동해만리사랑의 배걸에 고통을 울리

며 조국을 향해 떠났다.

감격적인 그날 한덕수선생은 조국으로 떠나는 동포들을 눈물속에 바래우며 공화국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김일성원수님 만세!》를 목청껏 외쳤다.

제일교포사회의 민심이 공화국으로 쏠리는데 당황망조한 일본반동들과 남조선동지배들은 《영주권신청》뉴스와 남조선 《국적》강요책동을 악랄하게 강행하면서 동포들을 공화국과 총련의 품에서 때려내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덕수선생은 총련이 동포대중을 공화국국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그는 동포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계몽각성시키기 위한 모든 언설문들을 자기 직접 썼다. 한편 그는 반동들의 책동에 역풍세로 맞바나갈 결심말에 지난 기간 일본당국으로부터 당치않게 남조선 《국적》을 강요당한 동포들의 국적을 조선국적으로 고치기 위한 투쟁을 함께 벌려나갔다.

총련의 투쟁에 힘을 얻은 미조직동포들도 내외반동들의 《영주권신청》뉴스를 반대하고 조선국적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 적극 합세함으로써 수많은 동포들이 조선국적을 되찾게 되었다.

이밖에도 제일동포들의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리양과 조국으로의 귀환을 위하여, 제일조선상공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쟁취한것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적민족련회를 쟁취하기 위한 총련의 투쟁에서는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한덕수선생이 이렇듯 총련을 강위력한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킨 력사에 남을 공적을 세운 비범한재능은 자기 령도자와 조국을 끝까지 따르며 만들 애국충정성이 높여있었다.

본사기자

며 조국을 향해 떠났다.

감격적인 그날 한덕수선생은 조국으로 떠나는 동포들을 눈물속에 바래우며 공화국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김일성원수님 만세!》를 목청껏 외쳤다.

제일교포사회의 민심이 공화국으로 쏠리는데 당황망조한 일본반동들과 남조선동지배들은 《영주권신청》뉴스와 남조선 《국적》강요책동을 악랄하게 강행하면서 동포들을 공화국과 총련의 품에서 때려내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덕수선생은 총련이 동포대중을 공화국국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그는 동포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계몽각성시키기 위한 모든 언설문들을 자기 직접 썼다. 한편 그는 반동들의 책동에 역풍세로 맞바나갈 결심말에 지난 기간 일본당국으로부터 당치않게 남조선 《국적》을 강요당한 동포들의 국적을 조선국적으로 고치기 위한 투쟁을 함께 벌려나갔다.

총련의 투쟁에 힘을 얻은 미조직동포들도 내외반동들의 《영주권신청》뉴스를 반대하고 조선국적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 적극 합세함으로써 수많은 동포들이 조선국적을 되찾게 되었다.

이밖에도 제일동포들의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리양과 조국으로의 귀환을 위하여, 제일조선상공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쟁취한것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적민족련회를 쟁취하기 위한 총련의 투쟁에서는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한덕수선생이 이렇듯 총련을 강위력한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킨 력사에 남을 공적을 세운 비범한재능은 자기 령도자와 조국을 끝까지 따르며 만들 애국충정성이 높여있었다.

본사기자

## 민족대단결의 원칙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면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이 장장 70여년 이상 지속되면서 북과 남사이에는 여러가지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다.

민족의 각이한 계급, 계층의 요구와 리해관계도 서로 다르다. 하지만 우리 민족 앞에 1차적으로 나서는 민족적과업은 조국통일이다.

조국통일위업은 민족내부의 계급적모순이나 제도상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적위업이다. 민족을 떠난

계급이나 계층이란 있을 수 없으며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민족성원들의 자주성도 보장될 수 없다.

조국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나서고 있는 오늘 어느 계급이나 계층도 자기의 리해관계를 민족공동의 리익보다 앞세워서 는 안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고 계급, 계층의 리해관계가 다르다고 해도 민족공동의 리우에 놓일 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사상과 계급,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 계층의 리해관계를 뛰어넘어 민족공동의 리익과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켜나간다면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룰 수 있다.

본사기자 유금주

##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한 대결광들의 말로

남조선에서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미쳐나뛰다가 만 사람의 저주와 규탄속에 비참한 운명을 고한 친화역적들 가운데는 악명높은 《5공》 독재자인 전두환역도도 있다.

전두환과 또 《정권》이 남조선인민들로부터 《태어 나서는 안될 정권》으로 락인되고 역도가 《극악한 살인미수》, 《낮아죽 두꺼운 과소망》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죽어서도 민심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으로 된것은 극악한 사대매국노, 동족대결광에 차려진 괴물수 없는 운명이다.

◆

전두환으로 말하면 온 광주시를 《피의 목욕탕》으로 만들었던 극악한 살인민, 군사파쇼독재자이며 친미친군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눈이 되어 날랜 만고역적, 대결광이다.

1979년 미국의 비호밑에 12.12군부쿠데타를 일으켜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은 이듬해 5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선 광주민들을 《죽도》로 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였다.

그후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대통령》감투를 뒤집어 쓴 전두환은 집권기간 남조선의 자주, 민주화운동을 총칼로 탄압하는 동시에 《승공통일》 야망 실현에 미쳐나뛰었다. 또한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인 《팀 스퀘어트》 합동군사연습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핵무기를 비롯하여 대량살상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었으며 미일상전을 등에 업고 시종일관 반

## 민심의 저주속에 저승길을 간 전두환군사광대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제 침략행위를 지지하는것도 서슴치 않았다.

역도는 자기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로 하여 《5공정문회》, 《광주청문회》를 비롯한 각종 《청문회》와 재판판에 끌려나와 야당인물들로 부터 응당한 규탄과 저주를 받았다. 특히 전두환역도는 사회적저주를 피해 스스로 고향주변의 백담사라는 사찰에 들어가 2년 남짓한 기간 《류배》생활을 하였으며 그후 고향에서 잠옷바람으로 체포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역도는 인생말년에도 집권기간 광주민봉기를 무차별적으로 탄압한 죄악으로 재판장에 끌려다니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대국민사과를 꺼려 거부하여 민심의 저주를 받다가 자기 집에서 죽었다. 역도는 죽어서도 각계층 인민들의 비난과 저주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 우리 학교는 우리의 자랑

총련 《조선신보》에 의하면 얼마전 일본 오사카부 제4초급 학교창립 75돐을 기념하는 금강산가족단과 이 학교 학생, 원아들이 출연한 특별공연 《우리 학교는 우리의 자랑》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학교졸업생들과 일본인민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대창작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고》로 막을 올린 공연무대에는 금강산가족단 성원들과 모든 재학생들, 원아들, 졸업생들이 출연하였다. 공연무대에는 금강산가족단 성원들이 특별출연한 장면은 관객들에게 커다란 감흥을 안겨주었다.

가족단성원들과 전교생들이 출연한 대창작 《우리 학교는 우리의 자랑》으로 흥성이던 공연장의 분위기는 중창에서 모든 출연자들이 고가를 합창하자 절정에 달하였다.

공연을 관람한 이 학교 졸업생 서희련(20살)은 《무대에 선 학생, 원아들의 친진란만한 모습을 보고 감동하였고 내가 앞으로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 어

들이 출연하였다. 공연무대에는 금강산가족단 성원들이 출연한 장면은 관객들에게 커다란 감흥을 안겨주었다.

가족단성원들과 전교생들이 출연한 대창작 《우리 학교는 우리의 자랑》으로 흥성이던 공연장의 분위기는 중창에서 모든 출연자들이 고가를 합창하자 절정에 달하였다.

공연을 관람한 이 학교 졸업생 서희련(20살)은 《무대에 선 학생, 원아들의 친진란만한 모습을 보고 감동하였고 내가 앞으로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 어

떻게 기여할수 있는가를 생각하였다. 우리들 둘러싼 환경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더 많은 동무들과 뜻을 같이하여 우리 학교와 동포사회를 꼭 지켜나갈 것이다》고 하였다.

이번 기념공연실행위원회 허경자명예위원장(67살)은 금강산가족단 성원들과 학생들이 함께 출연한데 대해 《아이들에게 각별한 추억을 안겨주기 위해 준비하였다》고 하면서 《지금 생きている 것은 나도 어머니(김갑성, 공화국로력영웅, 금강산가족단후원회 부회장)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것,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1세대들의 뜨거운 뜻을 아이들의 가슴속에 심어주었으면 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떻게 기여할수 있는가를 생각하였다. 우리들 둘러싼 환경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더 많은 동무들과 뜻을 같이하여 우리 학교와 동포사회를 꼭 지켜나갈 것이다》고 하였다.

이번 기념공연실행위원회 허경자명예위원장(67살)은 금강산가족단 성원들과 학생들이 함께 출연한데 대해 《아이들에게 각별한 추억을 안겨주기 위해 준비하였다》고 하면서 《지금 생きている 것은 나도 어머니(김갑성, 공화국로력영웅, 금강산가족단후원회 부회장)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것,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1세대들의 뜨거운 뜻을 아이들의 가슴속에 심어주었으면 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전두환은 철저한 친미, 친일사대매국노로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자유세계의 지도국》으로 발라맞추면서 남조선장점 미군의 영구주둔을 예결하였다.

1984년 9월 일본을 행각하여서는 《일본과 한국은 같은 령토》, 《운명공동체》라고 하면서 《원조》를 구걸하였으며 《일본의 방위력증강은 일본자체의 방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를

